

buddhanews.com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17면에서 계속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력이 오고 감이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실런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연히 알아서 지혜롭게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증용하셔서 실존으로 공행하시도록 하신다면 과거에 지워진 것들도 다 녹이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에 치우치는 것 아닌지?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마음 공부 어떻게 보면 체계도 없고 용(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질문에 대해서 스님의 답변이 상대에 따라서 다르시고 주인공을 믿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측면을 경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용에 치우치게 보인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를 종합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애를 가지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따라서 첫번째는, 당신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주인공이 이끌어 가고, 주인공에 의해서 생각이 나고 주인공이 당신을 형성시켰고, 당신의 주인공이 운전수와 같이 당신을 끌고 다닌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으로 '내가 이력할까요 저력할까요.' 하고 나한테 묻지 말고 꼭 당신의 주인공에 맡겨 놓고 오관을 통해서 이 세상 판단을 해서 딱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그대로 용입니다. 그러면 용을 가르치고 마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참선을 가르치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한데 포함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얼마입니까? 애든 어른이든, 늙은든 젊은든 간에 이 모습이 없으면 도대체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아는 거, 부딪침을 아는 거 뜻을 아는 거, 이 여섯 가지의 문제를 다 여러분은 살아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 있지 않고는 그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그냥 동시에 가르치는 겁니다. 이젠, 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벙벙하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고맙고 편리한지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즉 말하자면 용은 바로 마음에서 용이 나가는 거고 마음이 있기 이전에는 바로 참나가 있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용이다 마음공부다, 참선이다 좌선이다 할 게 따로 없애다 이 소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도 두 가지, 세 가지 얘기를 하죠. 근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모든 일체를 이끌어 가는데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당신 마음 나오는 대로 해."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지, 왜 날더러 물어?" 이렇게도 합니다. 이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전체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모든 전체를,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거기에 모두 맡겼다는 겁니다. 아주 묘한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탄 스님네하고 다르게 가르친다 이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급하면 급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을

되느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법이니까, 여의니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부모가 제신대 "어머니, 저 어린애 낳고 피비린내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식이 또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린애 낳아서 경사를 봤으니까 제사를 더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아유, 그렇고말고!"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거는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거부할 하고 "애, 그러하지 마라. 이력해라." 하면 그 자식들이 더 곤란할 거고 그 도리를 몰라. 스스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모의 돌아가신 날을 음미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린애를 낳아서 부정이 있고, 어린애 안 낳았으니까 부정이 없고, 무슨 그런 게 어딴습니까? 자기의 정성입니다. 그게, 그것이 근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깨끗한 자식으로서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향 한 개비를 불 하나를 켜 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정성이다 이겁니다.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주 스님도 그렇게 양면을 다 그렇게 허술하게 체계 없이 말을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볼 때 아침 쇠상에 '오종 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라고 있습니다. 오종대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종대은이라는 뜻은 일체제불의 종지를,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씨, 불씨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우리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못하든 잘하든,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지 잘 이끌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어딴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입니다.

그와 같이 '그 뒤 대통령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지만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각 나라의 임금과 임금이 접하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내 나라를 중요시하지 남의 나라를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든지 마다 안 하고 하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볼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와 같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 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는 '이것이 안된다, 된다' 하고 야단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기 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써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불이고 안 불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불이면 즉, 전선졸과 전선졸을 한데 불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불이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나가 그래서 '뇌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뇌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뇌라. 뇌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직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모두 별성이 나 축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샘터라는 것도 모두가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샘터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 샘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열매가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려서 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선과 악을 뇌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뇌라! 뇌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끌고 있다 이겁니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결이 되고 안되고, 요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해결을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해결을 못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그게 뜻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의 뜻을 한데다 펴트린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에 이루어질 못하는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이 이루는 것만 도가 아니라 능력을 가르면 내가 용을 하는 건 스스로 부수적으로, 그냥 그대로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용을 일부러 배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생각하면 움직 거러지는 것이 용인데 뭐가 그게 용을 따로 배우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다" 했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무슨 뜻이냐? 조주 스님이 대답하신 거는 대답을 있다고 할 때는 없는 거하고 포함해서 한 거고, 또 없다고 했을 때도 있는 거하고 포함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참선에는 체계가 있어서는 선이 아닙니다. 체계가 없이, 체계가 없는 것이 즉 참선입니다. 체계가 없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칠두칠미하게 여러분의 진실한, 지금 해 나가는 여여함이 그대로 바로 참선이요, 행이요, 용인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80여일이 넘게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기 문제를 시작된 촛불시위가 새로운 정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일본과 미국과도 연관된 독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리 사회가 조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시국에서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주 만유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 인과 필연의 법칙, 우리의 몸과 생명, 정신 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전되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불도 증생도 이 모두가 하나도 없

니다. 또 부모의 은혜, 낳고 길러 주고 가르치고 그랬건만 머리털이 새어서 죽을 때까지 내내 마고고생을 있는 대로 시키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불의 은혜, 바람·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모두가 감사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돌 아닌 돌리 열만 납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데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활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대로 이 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대로 이끌어 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이끌어 주는 그런 수습역의 증생들이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사무직 모집

경기도 일산 소재 사찰입니다.

**불심이 견고한
사무직 직원(남·여 각 1인)을
모집합니다**

영가 봉안 천도 도량을 참고하세요.

※ 사찰에서 숙식 환영

전화 031)901-195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장안사

입종안내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종정청암	부종정화주
총무원장 지공	원로의장 청해
감시원장 만봉	종회의장 보광
교육원장 지원	종회부부장 관불
사정원장 일현	종회의원 진광
호법원장 거승	포교원장 원각
문화원장 덕호	복지원장 법성
총무부장 석문	재무부장 지호
감찰부장 지인	홍보부장 도일심
문화부장 용기	의전부장 해오
섭외부장 성화	

- 각 지역구 총무원장을 모집합니다
- 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 총무원 : 울산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전화 052)293-7328 핸드폰 011-556-5507

불교범패작법전수원 2008학년도 후기 수강생 모집

귀의살보 하얏고, 사중의 안념과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제, 49제, 사물(태진,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등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불교의식을 모으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기초재의식반

▷ 수업일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3시

▷ 수업내용 :

기초반 -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 아침수주 등 재의식반 - 49제, 천도제, 점안의식, 구명사시

직법 - 바라춤,오장바라, 화의재바라, 관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나비춤,사방요신,도랑계, 다계, 음남, 운심계

▷ 수업기간 : 1년

▷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바라

▷ 개강일 :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재의식전문반

▷ 수업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수업내용 :

법패 - 걸채비, 안채비, 짓소리(소리와 태진치는법 위주로 강의) 직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명바라, 관음계바라, 화의재바라,

법고무, 도랑계, 다계, 운심계, 음남, 모란찬, 기경이, 구원결중, 오공양, 육법공양, 향화계

▷ 수업기간 : 6개월(기초의식을 필한자)

▷ 준비물 : 필기도구, 녹음기, 태진, 바라

▷ 개강일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문의전화 : 033)731-7759 / 011-269-4168

송원사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문막 1C-문막방향 3분거리)

한국불교여래종 입종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진(여권용) 4매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 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역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